난민 선교 : 우리 곁에 다가온 이웃

No Longer Strangers Refugees Ministry – Dayton, Ohio

**황영송 목사**

**Rev. Steve Hwang**

1. **Introduction:**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기독교 선교는 교회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반드시 그것은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한다.” (David Bosch)**

**구약 성경이 묘사하는 세 가지 실재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크리스토퍼 Wright)

1. 하나님의 실재

성경은 자연 세계(하나님의 피조물이다)를 통해 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구약에 나오는 성경 본문들이다.

1. 이야기의 실재

구약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 하나의 이야기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피조물, 시간, 인간 전체를 포함시킬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 안에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성경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 서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이야기에 근거한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 그것은 모든 세계관 및 메타 서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존재 방식과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설명한다.” (Craig Bartholomew and Michael W. Gheen, “Story and Biblical Theology” Zondervan, 2004, pp.144-171)

1. 백성의 실재

고대 이스라엘 자신들의 선택, 역사,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견해로 인해, 나머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실재다.

열방에 대한 기독교 선교는 이 백성이 부름받은 것과, 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는 방식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 96:2-3)

구약의 이 세 가지 특징, 곧 하나님, 이야기, 백성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그 특징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
*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절정과 마지막 결말을 확실히 안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의 이야기이다.

*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백성’의 일부가 되어, 그들과 같은 포괄적 정체성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십자가와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시민, 하나님 집의 권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엡 2:11-13:13).

1. **난민의 실재**

난민이 누구인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또는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Oxford Dictionaries에 의하면, 난민(refugee)은 “A person who has been forced to leave their country in order to escape war, persecution, or natural disaster”로 정의 되어 있다.

세계 난민 현황 (Refugees in the World: Statistics, Trends and Generating Factors)

세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집과 고향을 떠나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 많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적 이주(world migration)의 규모는 10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13%에 이르는데 (UN Development Program-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이는 세계 인구 7.7명 당 1명인 셈이다. 세계적 이주자 10억 명에는 자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긴(internal migrants) 7억 4천만 명과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international migrants) 2억 5,8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 **세계 난민의 현황**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과 고향을 떠나 거주지를 옮긴이들이 많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적 이주(world migration)의 규모는 10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13%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인구 7.7명 당 1명인 셈이다. 세계적 이주자 10억 명에는 자국 내에서 거주지를 옮긴(internal migrants) 7억 4천만 명과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international migrants) 2억 5,8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자발적인 동기와 비자발적인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자발적인 동기로 이주를 결행한 이들(forcibly displaced people)의 수가 6,850만 명에 이른다. 그러면 세계 이주민 중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이주민의 규모는 9억 3천만 명 이상이 되는 셈이며, 이는 세계 이주민의 절대 다수 (93%)에 해당된다.

유엔이 파악한 이주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가족, 그리고 공부”인데 이 3가지 원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이주의 주요 원인들은 갈등과 충돌(conflict), 폭력(violence), 박해(persecution), 재해(disaster)등이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삶의 장소를 옮긴이들을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통칭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비자발적 해외 이주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1. **난민의 정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난민(難民)을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또는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위를 인정받는 Oxford Dictionaries에 의하면, 난민(refuge)은 “A person who has been forced to leave their country in order to escape war, persecution, or natural disaster”로 정의되어 있다.

이 영문 정의를 한글로 번역하면 “전쟁, 박해 또는 자연 재해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고국을 떠난 사람”이 된다.

한글과 영어 사전을 비교하면 2가지의 다른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한글 사전은 난민의 상태(곤경에 빠진)에 초점이 맞추어 진 반면 영어 사전은 행동(leave)에 맞추어져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한글 사전과 달리 영어 사전은 난민을 고국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1951년 유엔 난민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통하여 난민(refuge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 **난민의 규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가장 최고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세계적으로 박해나 갈등 또는 폭력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삶의 장소를 옮긴이들(FDP)의 수가 6,850만 명인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0.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비자발적 이주민들의 수에는 타국으로 피신을 간 난민(refuges) 2,540만 명과 자국내에서 이동한 이들, ‘자국인 실향민’(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4,000만 명 그리고 망명 신청자(asylum-seekers) 31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Source: UNHCR, global trend:forced displacement in 2017)

1. **세계 10대 난민 발생 국가**

시리아 : 631만 명

아프가니스탄 : 262만 명

남수단 : 244만 명

미얀마 : 116만 명

소말리아 : 99만 명

콩고민주공화국 : 62만 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55만 명

에리트리아 : 49만 명

부룬디 : 44만 명

이라크 : 36만 명

합 계 : 1,598만 명(세계 난민의 80.1%)

1. **세계 10대 망명(Asylum-Seekers) 신청자 체류 국가**

미국 : 64만 명

독일 : 43만 명

터키 : 31만 명

남아프리카공화국 : 19만 명

이탈리아 : 19만 명

브라징 : 9만 명

프랑스 : 6만 명

이집트 : 6만 명

캐나다 : 5만 명

스웨덴 : 5만 명

합 계 : 207만 명 (세계 망명 신청자의 70.0%)

1. **난민의 추세 (2007년부터 2017년)**

2017넌 – 난민 1,994만 명, 연 증가율 16.0%

2016년 – 난민 1,719만 명, 연 증가율 6.6%

2015년 – 난민 1,612만 명, 연 증가율 12.1%

2014년 – 난민 1,438만 명, 연 증가율 22.9%

2013년 – 난민 1,170만 명. 연 증가율 11.5%

2012년 – 난민 1,050만 명, 연 증가율 0.9%

2011년 – 난민 1,040만 명, 연 증가율 –1.4%

2010년 – 난민 1.055만 명, 연 증가율 1.5%

2009년 – 난민 1,040만 명, 연 증가율 –0.8%

2008년 – 난민 1,048만 명, 연 증가율 –8.0%

2007년 – 난민 1,139만 명

성경과 같은 고대 문서에 난민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정도로 난민의 역사는 길다. 난민은 그 시대의 불행한 피해자들이가. 21세기의 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 시대부터 난민들은 이전 시대의 난민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난민은 원치 않게 집과 고향과 모국을 떠나 외국으로 피신을 결행한 사람으로 정의되었으며, 난민은 선진국 보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서구권보다는 난민 발생 인근 지역임이 밝혀졌다. 또한 21세기 들어 난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외국 이주의 주요 유발자들은 부패하고 사악한 권력, 다수 종교 및 다수 부족 세력, 급진주의 단체, 무장 조직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고로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의 수는? 2, 245명이다.

1. **새 선교의 패러다임**

**No Longer Strangers Refugee Ministry, Dayton, Ohio**

**www.nlsrm.org**

Global Migration: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Your community is changing

이미 선교의 장은 여러모로 변화되었다.

난민사역이 바로 그 패러다임에 한 면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네 가지 핵심 역할은 예배, 교제, 봉사(섬김), 및 증거(선교)이다.

그 가운데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봉사 및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옷과 떡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신 10:18-19)

신명기 14장 28-29절에 매 삼년 마다 거두는 십일조를 레위인,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저축하고 그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점에서 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 및 봉사사역이다.

특히 오늘날 난민 가운데 무슬림 난민이어서 더 관심을 갖아야 한다.

한국선교의 해외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무슬림 권 선교사 파송 비율은 약 4%였다. 전 세계 무슬림 선교사 파송 비율도 비슷하게 4%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이슬람 국가에서 비자문제와 관련된 것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역의 결실이 적기 때문에 기인한 요인도 있다고 본다. 이것을 선교 역사학자 스티븐 닐이 잘 지적했다. “무슬림 국가들은 기독교 선교에서, 생산적인 선교지에 비해 소홀히 여겨졌다.”(Stephen Nei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NY Penguin, 1964, p.378)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테러, 폭력과 전쟁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미국 내에 그 난민들이 우리 도시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이슬람 전도 또는 선교의 장을 열어 주신 것이다.

이미 선교의 장은 여러모로 많이 변화되었다.

난민사역이 바로 선교의 새 패러다임에 한 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민교회를 목회하며 선교에 관심을 갖는 중에 미국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난민들을 제일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부류가 누굴까? 묻는다면 이민교회 교인들이 아닐까 한다.

Dayton, Ohio Refugee Ministry (No Longer Strangers Refugee Ministry)

In the last 5 years roughly 2,000 people

1)Eritrea (에리트레아: 아프리카 북동부)

2)DRC: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민주공화국)

3)Sudan (수단: 아프리카 북동부의 공화국 사하라 사막)

4)Bhutan (부탄: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산맥 속의 작은 왕국)

5)Burma (버마: 동남아시아의 구Myanmar)

6)Colombia (콜롬비아)

7)Iraq (이라크)

8)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9)Iran (이란)

**난민 가정과 어린이 사역**

* Group work (Grade Levels 1-6)
  + Mentorship
  + English
  + Math
  + Bible Based Lessons
  + Science & Physics
  + Arts and Craft
  + Technology (Piper)
  + Basketball Camp

**Work Site**

* Playground Area, Fence, Storage, Pergola, Minor Housing Restoration

**사역팀 (Ministry Teams and Leadership Roles)**

* Education Coordinator
* Elective Coordinator
  + Science & Technology Coordinators
  + Arts & Crafts Coordinator
* Worksite Coordinators
  + Community Space Coordinator
  + Housing Restoration Coordinator

**스포츠 사역팀 (Sport Ministry)**

* Soccer

난민위기에 기독교인의 대응A Christian Response to the Refugee Crises

난민과 이민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있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동했고, 살수없는 형편으로 쫓겨나가기도 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정착지도 정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새 삶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people of movement)을 크게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합법/불법, 시민/외국인. 이렇게 분리함으로 불평등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벌적인 문제로만 보아 합법/불법, 시민/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무시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인권이 무시당하는 비인도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성경에는 나와 다른이들(Others)에 관한 구절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나와 국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믿음 그리고 나와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피난민들을 위한 우리의 응답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적극적 환대 (radical hospitality)에서 출발해야 한다.**

1.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뜻 :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24:1)**
2.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것 :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레 19:33-34)**
3.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대로, 우리는 이방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궁극적인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국경없이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같이 대해야 합니다.
4. 예수님이 원하시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 :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엔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눅 14:12-14)**
5.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며,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은 손님이 되는 것 (눅19:5), 이방인이 되는 것(마25:35-40), 그리고 주인이 되는 것 (계 19:9)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다.

성경에서 난민을 어떻게 대우하라 하시는가?

1. 난민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레 19:33-34)
2.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레 19:9-10)
3.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외부인들을 사랑하신다 (신10:18-19)
4. 소돔의 죄는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이다 (겔 16:49)
5. 외국인을 핍박하지 말라 (출 23:9)
6. 방문자를 위해 문을 열어두라 (욥 31:32)
7. 이방인을 환대하라 (마 25:35-36)
8.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갈5:14)
9. 네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눅10:29-37)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다. 그리고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하나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눅 10:36)**